

91. 7. 7

빈민가 놀이방 거리 나았을판

집세 너무올라...불안한 동심 가슴아파

4살난 우리딸은 아침 8시부터 저녁 7시까지 놀이방에서 생활한다. 잠자는 시간을 빼고는 거의 대부분의 생활을 놀이방에서 하는 셈이다.

인격 형성에 가장 중요한 이 시기에 아이들의 좋은 인성개발을 위해 너무도 소중한 놀이방이 내눈에는 그저 답답하고 안타깝기만 하다. 그렇게 안타깝고 편치 않은 놀이방에 아이를 떠맡기다시피하고 굳이 직장을 다니는 이유는 나의 자아실현 욕구 때문이거나 내가 가진 재능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남편 월급만으로는 부족한 우리집 형편 때문이다. 우리 아이를 돌봐줄 사람과 돌봐줄 곳을 찾다보니 너무도 터무니없는 현실이 기가 막히다.

놀이방은 크게 세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첫번째는 나 같은 사람의 한달 월급을 다주어도 부족한 곳이고 두번째는 내 월급의 반 이상을 치러야 할 곳인데 이런 곳이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놀이방이다. 그리고 나머지는 나 같은 서민노동자를 위해 사명감으로 아이들을 돌봐주는 영세한 놀이방들이다. 나와 비슷한 처지의 주부들은 첫번째와 두번째 같은 놀이방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영세놀이방에 맡기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이런 곳은 시설이나 자금이 너무 부족하기에 엄마들이 마음편히 맡길 데가 못된다. 독지가들의 지원으로 근근하게 꾸려가기 때문이다.

게다가 아이가 다니는 놀이방

의 집세를 올려달라고 하는데 올릴 형편이 도저히 안되고 다른 곳을 얻자니 터무니없이 비싸, 길에 나았을 위기에 몰렸다고 한다. 하루하루 불안한 마음으로 아이를 맡기는 엄마의 심정이 너무도 쓰리고 아프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세운 놀이방이 아닌 영세 놀이방들을 적극 지원하고 늘려야 한다고 본다. 우리처럼 어려운 서민들의 고충도 덜 뿐 아니라 어린 꿈나무들이 건강하고 밝게 자랄 수 있게 한다면 이 얼마나 크고 소중한 일이며 행복해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는가. 소망을 가진 아이, 희망이 있는 엄마로 가득찬 건강한 사회에 살고 싶은 것이 나의 바람이다.

조 진 희 <서울 구로구 구로 1동 482-1>